

홍천신문

행복한 어르신! 가고싶은 복지관! 함께하는 지역복지!

2024년 3월 (제118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현윤재
창간일 2014년 5월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복지관 소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발한 활동 진행



2024년 1월부터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로식당 지원, 경륜 전수, 돌봄 지원, 밑반찬 배달 서비스, 복지 시설 운영지원, 행복 나눔빨래방, 휴카페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보충적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증진 도모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는 홍천군노인복지관(북방)에서 운영 중인 밑반찬 배달 서비스와 행복나눔빨래방을 소개하려고 한다.

밑반찬 배달 서비스

복지관에서는 밑반찬 배달을 위해 오전 8시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리된 밑반찬을 하루에 드실 수 있는 분량으로 도시락통에 담아 포장하고 재가 어르신 가정에 배달하는 작업이다. 현재 밑반찬 배달은 2인 1조로 편성된 6팀이 총 59가구에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전에는 주에 두 번(화, 금)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주말을 제외한 주 5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배달 하면서 안부 확인 및 생활 점검, 말벗 등 노인



일자리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간에 따뜻한 관계 맺기로 인해 다각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행복나눔빨래방

홍천군노인복지관 행복나눔빨래방은 북방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3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28명의 일자리 어르신들이 취약계층 이불 세탁 지원과 우유 배달 및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빨래방에는 특대형 세탁기 2대, 소형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 운동화 세탁기 1대, 운동화

건조기 1대가 있어 많은 세탁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진행 과정은 홍천군 10개 읍면에서 참여자를 신청받아 총 3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1차로 가정방문을 통해 이불을 수거, 2차로 검수 후 세탁과 건조, 3차로 포장 및 배달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밑반찬 배달 서비스는 포장부터 각 가정에 배달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하였는데 차량으로 먼 거리까지 이동해 여러 가정을 찾아다니면서도 항상 밝은 인사와 함께 밑반찬을 전달하여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기분 좋아지는 거 같았다.

행복나눔빨래방은 특대 세탁기기로 세탁하고 건조기까지 사용해 이불이 아주 뽀송뽀송해져서 받는 사람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불 포장을 할 때 다 같이 소통하고 합동하여 작업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웃으며 최선을 다하여 일자리에 참여하는 동년배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 또한 행복이 깃들었다.

김동식 기자
(dong-sik@hanmail.net)



CONTENTS

- 01 - 복지관 소식
- 02 - 마을 탐방
- 03 - 인물 탐방
- 04 - 지역 맛집
- 05 - 노년기 삶
- 06 - 연금제도 /미국의 장애인 복지
- 07 - 올바른 분리수거
- 08 - 인생 칼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SN 사회복지법인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홍천군노인복지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선도하는 마을 (결운리)

현재 노년층의 대다수가 겪었을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시골 마을에는 전화가 있는 집이 없었고, 라디오가 있는 집도 귀했었다. 마을의 몇 집 정도 만 끼니 걱정 없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런 지극히 가난하던 시대를 지나면서 도시의 발전도 그러하지만, 농촌의 삶도 많이 변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마을 자치는 어떻게 발전시켜 지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까? 마을 이장과 함께 작은 리더 그룹들이 하나의 마을 공동체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만큼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홍천읍 결운2리 마을

홍천읍 결운2리는 홍천읍의 동쪽에 있으며 산과 들판, 개울을 끼고 있는 아늑한 마을이다. 4개 반으로 130가구, 인구수는 256명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오랫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나 올해는 생명의 탄생으로 기쁜 소식이 찾아올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마을 전체의 기쁨이며 출산하는 가정에는 축하와 감사의 의미로 금반지 1돈을 증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급격한 환경과 삶의 변화를 겪는 우리 세대들은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그 중심에는 마을 이장의 통솔력이 필요하고 노력 없이는 마을의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시대이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현재의 결운리 마을 이장은 2018년에 취임하였다. 그 당시 마을 경로당은 작은 구역을 사용하였는데 방이 2개로 나누어져 있고 공간도 협소해 마을 회의조차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 이미 홍천군에서는 '기업형 새농촌 사업'이란 마을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신청하지 못해 결운2리는 일찍 시작한 다른 마을보다 수년 뒤쳐져 있었다.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다. 처음 맡은 이장직으로 고민과 생각이 많았다. 마을마다 특성이 있고 지역의 기반이 다르기에 기초 준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 마을을 혼자 방문하여 문의하고 고심도 하였다.

첫 번째 마을 만들기 사업: 가로수와 꽃 심기

그러던 중 2020년 첫 번째 '기초마을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선정이 되어 1,000만 원의 자금을 받았다. 이때부터는 마을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을 다니며 마을사업의 입지 조건과 사업 여건을 알아보고 연구하게 되었다.

사업 신청을 통해 받은 자금으로 마을에 가로수와 꽃을 심기로 하였다. 가로수 심기를 시작하기 위해 수종을 고르고 결정하기까지 생각과 고민이 많았다. 수많은 가로수 종류 중에서 마가목으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가을이면 열매가 빨갭게 익어 예쁘기도 하였으며 열매는 수확하여 마가목주를 담그고 마가목청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도로변에는 꽃 중에서 오래 피는 백일홍을 심었다. 해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꽃 심기에 동참하여 길고 긴 도로 양쪽에 모종을 심었다. 심은 후에는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였으며 가을에는 백일홍의 마른 꽃대 정리까지 해주었다. 이는 주민들의 협조로 인해 현재까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판매 중인 마가목주〉

기업형 새농촌 사업 선정

그 후 다시 기업형 새농촌 마을사업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하게 되었음에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금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몇 개의 마을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서 결운리 마을에 적합한 사업을 찾기 위해 노력과 연구를 쉬지 않았다. 주민들이 열심히 마을 행사에 참석하고 마을사업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에 집중하며 단합하는 모습에 호평도 받았다.

그러던 중 다시금 마을 주민들과 힘을 합쳐 새농촌 마을사업을 신청하였고 좋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선정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업의 기

반인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함에 따라 한 걸음 더 전진하여 마을 가꾸기 바탕이 마련되어 갔다.

경로당과 사랑채, 담소헌 신축

기초 마을 신청을 시작으로 기업형 새농촌 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여러 마을 이장들과 만나 보고 조언도 들으면서 노력했다. 그 결과로 마침내 경로당을 준공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마을의 기반을 만들게 되었다.



이 모든 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작업과 영상 만들기 등은 일부 젊은 개발위원들의 도움으로 손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 후 소그룹 모임인 개발 위원 회의나 기타 손님을 접대하는 사랑채를 완공하였고 대회의 장소인 담소헌도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기업형 새농촌 영농조합 설립

기업형 새농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영농조합 법인 '동인(同人)'을 설립하여 옥수수 판매, 김장 배추 절이기, 메주 만들기 사업 등을 기획하고 있다. 사업 자금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주민 주주화'의 일환으로 주민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많아 여유로운 자금력으로 좋은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1차로 진행될 절임 배추 작업장 설치와 기타 필요한 사업 시행을 손조롭게 준비하고 있다. 농산물을 수집하고 가공하기까지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재료비와 인건비가 지급되고, 판매는 업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모든 시설이 마련되어 기반이 갖추어질 것이며 올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생산과 가공을 하고 판매과정은 전문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마을 사업을 위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러 있다.

김순화 기자
(hereme50@naver.com)

인물 탐방

흥천군 경로당의 분회장들을 찾아서 2탄 (화촌면 박덕유 분회장)



〈박덕유 분회장, 우측 3번째〉

2024년 1월 24일 화촌면 복지센터 내 노인 분회 사무실에서 대한노인회 흥천군지회 화촌면 박덕유 분회장을 만나 작년과 올해의 화촌면 이야기를 주제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덕유 분회장은 2021년 11월 30일에 제7대 화촌면 분회장으로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흥천군의 총 206개 경로당 중 화촌면은 20개 경로당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박덕유 분회장과 윤동열 사무장은 화촌면의 경로당이 모범이 되는 경로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웃을 돌보며 믿음으로 함께 하는 삶의 쉼터로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웃과 나누며 함께 하는 사람들

화촌면 관내 외삼포리에서 자그마한 한 식당을 운영하는 길매식당의 김길매 사장은 항상 이웃을 돌보며 선행을 해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엔 옆 경로당 회원 40여 명과 주위에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을 초대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다고 하였다.

외삼포1리 경로당의 이진영 회장은 바쁜 축산 사업에도 불구하고 타에 모범이 되어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아 화촌면 경로당의 모든 회원에게 축하를 받았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주위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으며

화촌면 20개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 그리고 여러 경로당 회원들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꾸준한 봉사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

화촌면 릴레이 후원

2018년부터 화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원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로 화촌면 릴레이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박덕유 분회장이 이끄는 화촌면 분회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베풀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화촌면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고자 252번째 주자로 참여해 후원하였다.



이외에도 화촌농협 농가주부모임에서 후원은 함께 할수록 힘이 생기기 때문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기탁했다.

화촌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장 전달식

화촌면 분회 사무실에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화촌면 성산1리, 굴운리, 내삼포1리 각 경로당은 화합으로 하나 되어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기에 모범이 된다고 하였다.



위촉장을 받은 후에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끝으로 박덕유 분회장은 “화촌면 20개의 각 경로당을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으나 모두가 노력하여 건강한 쉼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분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안태수 기자
(taesu9110@naver.com)

지역 맛집

우리 동네 맛집 기행(紀行): '순두부가 맛있는 집'의 라면순두부



순두부의 어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순한 두부'에서 나왔다는 설과, '물두부'라는 뜻의 '수두부(水豆腐)'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충청, 경기, 황해 방언으로는 '숨두부'라고 부르며, 함경 방언으로는 '초두비'라 부릅니다.

순두부(-豆腐)는 눌러서 굳히지 않은 두부로 연두부보다 부드럽습니다. 불린 콩을 맷돌에 갈아 비지(건더기)를 걸러낸 다음, 걸러진 콩물을 솥에 넣고 저어 가며 끓이다가 간수를 넣으면 콩물의 단백질이 몽글몽글한 덩어리로 응고하는데 이때 굳은 덩어리를 솥물과 함께 뜬 것이 순두부입니다. 매우 까다로운 공정을 거칩니다만 요즘은 거의 공장에서 제품으로 만듭니다.

특히 강릉 초당순두부는 아주 유명합니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아버지 허엽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천일염으로 만든 간수 대신 동해의 깨끗한 바닷물로 간을 맞춰 두부 맛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그 제조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허엽의 호인 초당(草堂)을 붙여 초당순두부라 불립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아직 완연한 봄은 느낄 수 없는 쌀쌀한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따끈한 국물이 최고입니다. 말하자면 순두부찌개 같은 음식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순두부찌개를 맛깔나게 끓이는 '순두부가 맛있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식당 전면에 메뉴판이 가득합니다. 통념상 메뉴가 많으면 음식이 맛이 없다는 말은 이 식당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놀랄 정도로 모두 맛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개업하여 근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메인 음식은 라면, 김밥, 덮밥, 찌개류 그리고 순두부인데 여기에 토핑 종류를 달리하여 아주 다양한 음식 종류가 탄생했습니다. 순두부 종류만 해도 '김치순두부', '오뎅순두부', '라면순두부', '쫄면순두부', '햄순두부', '제육순두부', '쇠고기순두부' 정말 다양합니다. 이는 손님들의 맛 취향을 고려하여 메뉴 콘텐츠를 창의해낸 바깥 사장님의 배려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라면순두부를 주문했습니다. 곧 뽀글뽀글 끓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제 상에 놓입니다.

다.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돕니다. 순두부, 계란, 양파, 대파 그리고 바지락조개가 들어가 있고 국물은 매운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을 적절히 배합해 넣었습니다. 먼저 국을 골고루 풀어주고 순두부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니 그 칼칼한 국물과 어우러진 순두부가 입에서 절로 녹고 목을 넘기면서 시원한 맛으로 변합니다. 라면도 한 젓갈 입에 넣어 먹습니다. 순하고 칼칼한 라면 맛입니다.

어려웠던 유년 시절 저녁으로 국수를 삶을 때 어머니는 당시엔 귀했던 라면 한 봉지를 풀어 넣곤 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꼬불꼬불한 라면은 눈에 잘 띄지도 않았지만 운 좋게 한 가닥을 입에 넣으면 그 오묘하던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양파는 적당히 익어 단맛을 내되 씹는 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대파도 입에 넣으니 달콤하게 넘어갑니다. 바지락도 한 개 까서 조갯살을 맛봅니다. 부드러움만 있는 찌개 국에 쫄깃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바지락은 역시 찌개의 감초 같은 존재입니다.

맛의 비결은 여사장님의 음식 솜씨에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님께 어려서부터 배운 순두부 공정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장님은 마트에서 산 순두부지만 끓여서 맛이 별로면 폐기한다는군요. 이제 반 남은 국에 밥을 맵니다. 국과 반찬을 번갈아 먹으며 순두부 맛과 반찬 맛을 같이 음미합니다. 반찬으로는 김치, 미역 줄기 볶음, 감자조림인데 특히 감자조림은 적당히 익어 다소 설경설경한 맛이 오히려 식감이 좋습니다. 다 먹고 나니 뚝배기는 아직도 따끈따끈한 온기가 남아있고 쌀쌀한 몸의 한기는 절로 녹여졌습니다.

김민호 기자
(minho215@hanmail.net)

노년기 삶

노인 빈곤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

어느 사회고 빈부의 격차는 존재한다. 사회든, 개인이든 빈곤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 복잡한 원인을 한 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사회는 한 개인 혹은 가정의 빈곤을 도덕적 잣대로 재단하곤 한다.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빈곤은 어떤 사회문제보다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빈곤의 문제는 사회문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결국 빈곤 해결이 사회복지의 목표가 되고 있다.

빈곤의 문제는 몇 가지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 노인복지, 그중에서도 노인 빈곤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금전적 보전을 해주는 정책인데, 실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노인 빈곤은 많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영양, 건강, 고립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영적 육체적 문제가 특히 노인에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노인 빈곤은 고립감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우울감은 깊어진다. 빈곤은 단순히 못 입고 못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심지어 가족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스스로 어둠의 동굴 속으로 뒷걸음친다.

절대빈곤 속에서는 밥 한 숟가락이 급하다. 오랜 기간 그런 상황과 인식으로 살아왔다. 확신은 없었지만, 빵이 커지면 뭉이 커진다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심화할수록 빵은 커졌는데 내 뭉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빈곤의 문제는 더욱 사회 구조화되었고 심각해졌다.

우리 사회는 상대적 빈곤이 참여화된 구조이다. 그런데 그 구조는 마치 콘크리트같이 견고하고, 노인의 경우는 더욱 철옹성 같다. 몇 가지 노인 빈곤 해소정책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노인 빈곤은 노인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빈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영양, 질병, 관계 단절, 우울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신체적·정신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L 씨(65세)는 40대 이후부터 거의 평생을 공사관으로 떠돌아다녔다. 특별한 기술 없이 이 일 짬뽕 저 일 짬뽕하다 보니 잡부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 나이 들으니 젊었을 때 한 가지 기술이라도 배워둘 걸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때는 늦었다. 그렇게 근근이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늦게 만난 아내는 5년 전에 난소암으로 자식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일찍 L 씨 곁을 떠났다. L 씨는 살아갈 맛을 잃고 술에 의존하면서 되대로 살아왔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졌다. 그는 공사관에서 점점 배제되었다. 그러다 노인이 되었다. 이미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있었다.

L 씨는 3년 전에 도망치는 심정으로 살던 도시를 빠져나와 귀농 아닌 귀농을 했다. 전세보증금을 빼서 농토 겸 집터를 조그맣게 마련했다. 컨테이너로 거처를 꾸렸다. 주민들이 띄엄 띄엄 사는 동네라 별 접촉도 없었다. 게다가 각자 농사일에 바빴다. L 씨는 그게 편했다. 도시에 살 때는 길 가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찌나 전전긍긍했다. 내 꼴 남 보이기 싫어서이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는 더욱 그랬다. 그러다 스스로 감옥을 만들었다.

L 씨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었다. 그렇게 농촌으로 흘러들어 왔다. 무슨 준비를 한 것도 아니다. 어찌 보면 무작정이다. 소, 닭 보듯 이웃들과의 시간이 흘렀다. 작년에 시골에서 농사짓는 처남이 찾아왔다. 아내도 자식도 없이 지내는 매부가 궁금했나 보다. 처남은 자기 고향을 지키면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농사꾼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매형, 앞으로 짧아도 20년, 길면 30년 살아야 하는데, 매형이 이렇게 사는 것을 누나가 하늘에서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하며 농사도 짓고 이웃과도 소통하면서 지내라고 L 씨의 두 손을 잡아 주었다.

없는 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남 앞에 나서지 못했는데, 농촌은 사람들이 곁으로는 다 거기서 거기다 싶으니 다가가기가 좀 수월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인사도 하고 마을 행사에 참여하며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차츰 자신이 만든 감옥을 허물게 됐다. 빈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왔는데, 돈이 없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중이다.

빈곤 문제를 단지 해소만으로 풀려고 한다면 반쪽짜리 해결책이다.

빈곤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방법은 없다. 어떤 이론과 정책으로도 불가능하다. 빈곤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완화되는 것이며, 아무리 완화되더라도 상대적 빈곤 문제는 남는다. 때로는 상대적 빈곤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초래할 수 있다.

집중할수록 빈곤의 늪에 더 빠져든다. 이미 빈곤에 떨어진 노인은 빈곤을 해소할 방법이 거의 없다. 빈곤은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노인 빈곤은 분명 정신적 문제를 초래하지만 노인 빈곤 또한 정신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상호영향을 주는 관계이면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노인 빈곤의 문제는 정신건강의 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검토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노인 빈곤은 자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둔다.〉

성문영 기자
(sunggoodnews@naver.com)

연금제도

2024년 변경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아 오고 설 명절도 지나간 시점에 각종 복지 제도 대상자 기준과 혜택 및 조건 등이 변경되어 변화된 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 수급 자격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출생 연도별로 지급 시기가 상이하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출생 연도별 수령 기준

52년 이전생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 이후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기초연금은 2014년에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 이하인 국민에게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현재 노인의 3고(苦) 빈곤, 질병, 고독 중의 하나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인 만큼 23년에 비해 24년 달라진 기

초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작년보다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는데 5.4% 오른 금액으로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로 책정되었다. 이는 노인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환산한 금액)이 해당 선정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와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아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보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 이하라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배기량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생겼는데 이제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것으로 판정되어 가액 전액이 소득에 반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최대 50% 감액 사유가 발생하니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작년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였다더라도 선정기준에 의해 올해 다시 수급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3년 대비)

구분(가구)	23년	24년	증가액
선정 기준액			
단독	202만 원	213만 원	11만 원(5.4%)
부부	323,2만 원	340,8만 원	17,6만 원(5.4%)

신청해볼 것을 강조하였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와 기초연금 신청서를 받고 있다. 신청 방법은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고 필요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을 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해야 한다.

연금은 노후에 활동력이나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되는 시기에 평생 고정적인 금액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매달 월급처럼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서행연 기자
(bonbon2202@naver.com)

미국의 장애인 복지

미국 애틀랜타 장애인 복지 기관 '밀알 선교단' 방문

소외된 이웃들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우리들의 생활은 윤택해지고 편리해지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너무나 빠른 변화 속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장애인의 인권선언에는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원조, 경제적·사회적 보장, 사회적 활동의 보장 등 장애인 권리의 보장을 위해 각 국내 및 국제적인 행동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장애인으로서 누려야 할 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해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선언문의 취지와는 많은 괴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장애인의 천국이라고도 일컫는 미국의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고, 우리나라가 배우고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비영리 재단 '밀알 선교단'을 방문하게 되었다.

한국 밀알 선교단 및 밀알 학교 소개

'밀알 선교단'은 1979년 10월에 한국에서 최초로 창립되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그룹홈, 주간 보호센터,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등 다양한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지구촌 여러 나라에도 학교를 설립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는 강남 일원동에 '밀알 학교'가 있으며 약 200여 명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드림 대학의 학제에 맞추어 공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태국에도 밀알 학교를 설립 지원하고 있다.

미국 애틀랜타 '밀알 선교단' 소개

'밀알 선교단'은 미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특수교육 및 재활 지원, 이동권 보장, 경제적 역량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생계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애틀랜타 노크로스에 있는 '밀알 선교단'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어퍼



한 교육 활동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취재하고자 하였다. '아카데미 반' 13명의 장애 학생은 화, 수, 목, 금 4일간 비장애인 17명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주로 사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랑의 교실'로 토요일에는 30여 명의 장애 학생들이 모여 종교활동 및 초청연주, 레크리에이션, 신체 밸런스를 향상하기 위한 건강 체조, 콘서트, 한궁, 스포츠, 프리스비, 장기 발표, 두뇌 게임, 체력 게임,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심연흠 기자
(simmusic@naver.com)

올바른 분리수거

다 함께 환경을 지키자

통계청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20% 정도 수준이었던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수준이 2017년 69%까지 상승했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작은 일 같지만 나 한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미래의 환경도 지키고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온난화를 다소나마 늦출 수 있다.

분리수거는 환경과 사회에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 1. 온실가스 감소 효과 :** 쓰레기 처리 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하면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 2. 환경오염 방지 :** 쓰레기를 잘못 처리하면 토양, 물, 대기 등을 오염시킬 수 있기에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자원 절약 :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회수하고 활용할 수 있다. 플라스틱, 유리, 종이 등을 분리하여 처리하면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4. 재활용 촉진 : 분리수거는 재활용 산업을 지원한다. 재활용 공정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줄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열심히 분리수거하는 플라스틱 컵의 재활용률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 수준이 겨우 5% 정도라고 한다. 컵마다 재질이 다양해서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니 소각하거나, 땅속에 매립하게 된다. 컵과 같은 플라스틱 소재를 소각할 경우 유해 물질이 발생하여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고 매립하면 분해까지는 평균 20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작은 것 같지만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분리수거 쓰레기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5조 원 정도 된다. 처리비용도 4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개인이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 한 번 할 일을 여러 번 하는 것이다. 분리수거에 들어가는 세금도 만만치 않다. 생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나중에 분리수거를 두 번 이상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에너지, 시간, 비용이 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을 아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흥천의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분리수거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학습해야 하며 마을을 아름답게 지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활용을 실천해야 한다.

이복여 기자
(boy1145@hanmail.net)

재활용 쓰레기 배출 방법

그 외, 궁금하신 분리배출 방법은 스마트폰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이용해주세요!

<p>종이팩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기 별도 수거함이 없는 경우 묶어서 종이류로 배출 	<p>종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기에 젖지 않게 배출 코팅된 표지와 스프링 등 다른 재질은 제거 오염된 종이는 일반쓰레기로 배출 	<p>플라스틱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을 비우기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분리하고, 부착상표 제거 	<p>투명 페트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서 배출 유색과 분리하여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 <p><small>※음료 페트병만 해당, 기름병, 삼푸병, 세제병, 올리고당병 등은 안됨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small></p>
<p>스티로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흰색 스티로폼만 분리배출 가능, 색깔 있으면 일반쓰레기로 배출 부착된 테이프, 상표, 운송장 등 제거 	<p>금속캔 · 고철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걸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경우 제거 	<p>유리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p>건전지 · 형광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p>헌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이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자루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신발, 침구류는 일반 및 대형폐기물로 처리 	<p>대형폐기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거업체에 대형폐기물을 접수한 후,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 내촌면, 서석면, 서면, 내면: 면사무소에서 스티커 구입 후 배출 	<p>대형폐가전 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15990903.or.kr 전화 1599-0903 	<p>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p> <p>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문의 흥천군 환경과 청소행정담당 ☎ 033-430-2632</p>

인생 칼럼



석도익
소설가

다들 '각설이'라고 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노래가 있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 옛날에 각설이들이 구걸하러 다니면서 부르던 긴 노래라 하여 각설이 장타령이라 했다.

지금에는 지역 축제장 모퉁이에서 품바들이 호객하는 용도로 부르는 품바타령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면 연예 공연의 한 장르를 담당

하기도 한다. 익살을 가득 담아 엮어내는 서양의 랩과도 같은 것인데 지난날 가난한 백성들의 삶에 대한 고통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곡이다. 함께 잘 살아가고자 했던 걸인들의 장기로서 비록 빌어먹고 살지라도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닌

베풀어준 자에게 무언가 보답하려는 마음을 표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빈곤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닐 터, 누구나 불행이 닥치면 이 고비를 헤쳐 나가기 위해 이웃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걸인들은 다리 밑에 움막이나 자연 토굴에서 집단생활

을 했다. 이들도 나름의 규율에 따라 밥을 얻으러 나가야 했기에 새벽에 마을로 연거푸 찾아가지 않았던 집들을 택하여 다녔다.

주부들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 '이 댁에 밥 시키고 갑니다.' 하고 이르며 다닌

다. 이 말을 들은 주부들은 식구들 외에 밥 시킨 손님(걸인) 뭇까지 더 준비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주부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즈음 새벽에 밥 시키고 갔던 걸인이 대문 앞에 이르러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라고 알리고 깡통을 두드리며 각설이 장타령(품바타령)을

불렀다. 또한, 걸인들은 마을 집집의 애경사를 미리 알아놓았다가 모두 참여하여 함께 즐기고 슬픔을 같이했으니, 이들을 싫어하거나 업신여김 없이 손님 때론 이웃으로 평등하게 대했다.

이는 우리 민족이 더불어 나누며 살아왔던 아름다운 휴머니즘의 삶이고 풍습이었다.

품바 또는 각설이타령은 흥과 멋, 해학적 익살로 대등한 소통 관계를 만들어 빈부를 따지지 않으며 잘나고 못남도 없이 모두의 마음을 한마당 펼쳐놓게 한다. 또한, 지방마다 각기 특색이 있고 난해하지도, 천박하지도 않으며 어깨가 절로 들쭉이게 하는 리듬에 흥을 부르는 소리, 귀천 없는 인간관계로 살아가던 우리 민족의 정과 삶을 엿볼 수 있다.

각설이 장타령

우리 전통예절에 대한 이해

인생 칼럼



강정식
시인

우리는 예부터 조상을 숭배하고 예를 다하여 부모를 모시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 그러나 요즘 예절의 가치가 많이 변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사례로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가 없는 경우가 많다. 구한말 갑오개혁 이후 1900년대 결혼 예식장에서 주례가 100여 년 동안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 신랑 신부의 양부모나 사회자가 주례의 역할까지 모두 한다.

우리나라의 가정의례는 조선 시대 사대부와 유교를 근간으로 해서 양반사회를 중심으로 내려오다가 조선 말기 김옥균이 일으킨 삼

일천하 대개혁 운동 후부터 의례 개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는 개혁 당시 양반이 전 국민의 약 1% 미만이고 나머지는 서민 또는 평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농민과 공인(기술업) 상·천민 등으로 구분돼 있어 엄격한 신분 제도로 근 2,000여 년 동안 내려왔다. 신라와 고려 때에는 신분제

도가 엄격해서 호족이나 족장들이 조상에 대한 가정의례를 지켜왔고 서민은 제대로 된 예절이 없었다.

그 후 고려가 멸망하면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라의 정체성도 확립됐다. 고려의 불교 중심의 국정 운영이 조선 시대에 오면서 유교를 기본으로 한 성리학이 발달 되면서 전통 의례가 확립됐다. 예절의 기본 바탕은 중국의 송나라 때 성행했던 주자학의 예

의범절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다.

유교는 3,300여 년 전 중국에서 조갑이라는 자가 창시했고 이후 2,600여 년 전 공자에 의해 발전을 거듭했다.

조선에서는 유교의 본질인 성리학에 몰두해 강릉에 이이 율곡이 기호학과를 주장했고, 안동의 이황 퇴계는 영남학과를 창설해 조

선의 문화와 교육을 이끌었다.

이 두 분의 예절과 제례는 상반된 점이 많아 그 제자들 간에도 논쟁이 있었다. 이에 전라북도 부안 출신 김장생이 이이와 퇴계의 장점을 따서 표준 의례를 만들어 장려했다.

설과 추석에는 아침 일찍이 차사를 올리는데 설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햅쌀밥을 올린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생략되고 가정마다

그 양상이 다르다.

이러한 가정의례가 너무 허례 의식의 보여 주기식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효 사상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22년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위원장 최영갑)의 주도하에 표준화 방안을 발표해 제사 방식이 많이 간소화되었다.

제례음식은 9가지만 있어도 관참고 시간은 해가 떨어지면 아무 시간에 지내도 무방하다.

또한, 재물 진설법도 꼭 맞출 필요는 없다. 이러한 간소화의 이유는 즐거운 명절날 의례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초래하는 것을 막고 시대의 변화 따른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

물론,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게끔, 가족 간의 갈등 없이 기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다. 그게 조상님과 후손들에게도, 각 가문과 가정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